

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 · 가격동향 및 조치사항

2026. 5. 7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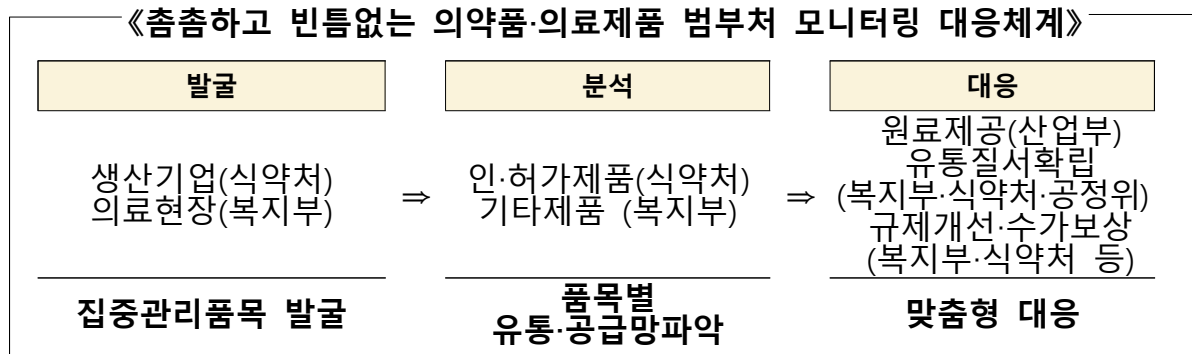
I . 모니터링 체계 및 동향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 .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	3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중동대응 의료제품 수급 · 가격 동향 및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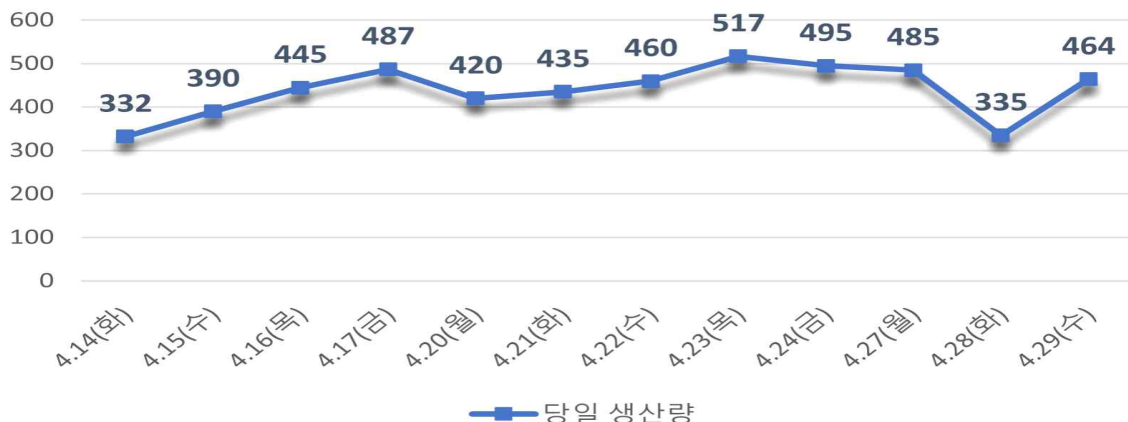
1 모니터링 체계 및 동향

- **(모니터링 체계)** 수급불안정 우려 의료제품에 대해 모니터링 체계 운영
 - 의사협회, 병원협회, 한의사협회, 치과의사협회, 약사회, 간호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를 통해 일일 모니터링 중(4.3~)
 -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제품(現 8개품목) 재고 현황을 매주 조사하여 실제 의료기관의 수급 상황을 점검 (보건소, 심병원 협조)(4.14~)



- **(수급동향)** 의원·약국 중심으로 주사가 주사침, 약포지, 투약병(시럽병) 등 4월초~중 수급 불안정 경향, 4월말 이후 **최근 수급 상황은 다소 안정추세 전환** 평가
 - ※ 12개 보건의약단체 회의(4.28)에서 의협, 병협, 약사회 등 유관 단체들도 공통된 평가
- **(주사기)** 제조 상위 10개소 생산량은 전년 대비 일평균 19.7% 증가(4.14~29)
 - 일일 생산량 464만개, 출고량 434만개로 총 재고량은 4,589만개(4.29)

주사기 생산량 변화



- (약포장지, 투약병(시럽병)) 재고 원료 활용, 원료 추가 확보 등을 통해 4월엔 평시 이상 생산, 5월에도 원료 우선 공급으로 유사할 전망
* 약 포장지 중 롤지 생산량은 '25년 월평균 32만 9천 롤 → '26년 4월 34만 5천 롤

- (기타 품목) 17개 시도 보건소, 심평원 협조를 받아 422개*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 조사결과, **전년 대비 84~116% 정상 범위** 내에서 관리
* 상급종합병원 31개, 종합병원 239개, 병원 152개

< 참고 : 품목별 조사대상 의료기관 총 재고량 현황 >

구분	의료폐기물 전용용기	멸균 포장재	수액제통	수액세트	혈액 투석제통	카테터	소변백
재고율	112%	92%	103%	116%	84%	100%	107%

- **(가격동향)** 주사기, 약 포장지, 투약병 등 5개 품목*에 대해 제조업체, 유통업체, 온라인 몰 등 가격 동향 모니터링 결과 **약 10~30% 수준 인상*** 확인

- * ① 주사기 (인상률: 14.5~34.5%), ② 조제약 포장지 (인상률: 12~20%), ③ 투약병(시럽병) (인상률: 17~20%)
④ 부항컵 (인상률: 14.2~24.2%) ⑤ 소변 주머니 (인상률: 7.7~33.3%)
** 의료제품 가격 인상은 일반 국민(환자)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, 인상금액 수준은 원단위~십원단위 수준으로 의료기관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

⇒ **의료제품 가격 인상은 ①플라스틱 원료 공급가 상승분의 생산원가 반영, ②고환을 추세, ③원료 공급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 발생 등에 기인하므로, 원료공급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인하 유도**

■ ■ 향후 가격인상 대응 방향

-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(공산품, 의약품·의료기기) 원료의 **안정적 공급**으로 자율적 가격 조절 유도
※ (최근 사례) 약국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투약병(공산품) 제조업체는 4월 초 30% 인상 이후 4월 말 20%대로 가격 인하
- 특히, 의약품·의료기기 부족 상황을 악용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업체가 다수 확인 되는 경우, 소관부처에서 판매업체 대상 유통질서 확립 조치 추진
※ (예시)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른 식약처 특별 단속 실시
- * (공산품) 약포장지, 투약병, 의료폐기물 전용용기, 멸균포장재 등
- * (의료기기) 주사기/ 주사침, 수액세트, 수액제 포장재, 부항컵, 소변백 등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

2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

1. 의료제품 공급 확대 및 필수의료 지원

□ 보건의료제품 생산에 플라스틱 원료 우선 공급

- 수액제 포장재, 주사기, 약포장지·투약병 등 단기 수급차질 우려 품목 제조업체에 원료 우선 공급 → 5월에도 우선 공급 예정, 6월 이후도 관리

- ▲ (수액제 포장재) 약 3개월간 차질없이 수급되도록 조치(3.24)
- ▲ (주사기류) 주사기 포장재 업체에 4월분 정상공급 확정(4.7), 주사기 업체PP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 차질(4.24)→ 4.24-27 ○○ 석유화학 기업 등 원료 수급 확인하여 해소
- ▲ (약포장지·투약병) ○○ 석유화학 기업 등과 협의하여 투약병 제조업체(2개사)에 부족 주요원료(PP,PE) 1~2주분 추가공급 (4.15~4.16)

□ 사재기 방지 등 유통질서 확립

- (생산·유통업체 단속) 적기에 수요처에 공급될수 있도록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특별단속(1차: 4.20.~22, 2차: 4.27.~30, 식약처), 일일 수급현황 투명하게 공개(4.15.~)
 - * 32개 업체(▲과다 재고 4곳 ▲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30곳 2개중복) → 고발 시정명령 조치(4.27.)
 - ※ (금지기준) ▲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%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 금지, ▲월평균 판매량의 110% 초과 금지▲ 동일한 구매처에 '25.12~'26.2월 월평균 판매량 초과판매 금지
- (의료기관 점검)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의료기관 24개소 현장점검 실시(5.4~7)

□ 필수의료 맞춤형 지원

- (필수의료 핫라인)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 의료기관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'주사기 공급망 핫라인' 가동(4.16~, 제조·수입 5개사-의협)
 - * 주사기 제조사(㈜한국백신 등)와 업무협약(4.18/23)·특별연장근로(주 52시간 해제)를 통해 주말 추가생산(522만개), 필수 의료분야와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
 - * (핫라인 공급현황) 97만개 온라인몰로 공급 → 21만개 의료기관(207개) 배송(5.3 기준)
- 한의계 필수 품목인 일회용 부항컵도 한의사협회 쇼핑몰(AKOM몰)을 통해 80만개 우선공급(4.23~) → 다수의 한의원에 물량 배분
- (희귀질환자 등 맞춤형 지원) 의료기관 외에 24시간 가정 내에서 케어가 필요한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 구매 지원(5.4~)

< 서비스 제공방식 >

- ① (환자식별)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통해 구매자의 희귀난치질환자 여부 식별
- ② (상품구매) 급여·비급여 품목으로 구분하여 주문(채팅·전화)하고, 결제 기능 제공
- ③ (배송) 환자가 원하는 주소지로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

2. 불필요한 수요 억제

□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 투명하게 공개

- 기존 일일 모니터링 체계(6개 의약단체 보고)와 주간단위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제품 재고현황 조사를 종합 분석*하여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

* 전년동기 대비 의료제품 재고량, 과다/과소 의료기관 분포 변화 등

- 주사기 생산량, 출고량,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 공개(매일)

→ **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** 및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작용 기대

□ 의료자원 낭비 방지 제도개선 및 캠페인 실시

- (제도개선) 의원급 의료기관, 보건소 일반의료폐기물* 배출 주기(15→30일) 한시 조정 시행(5.4~6.30) 등 규제완화 필요사항 적극 발굴 개선(복지부, 기후부)

* 혈액, 체액 등 함유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

- (캠페인 실시) 병원협회,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 중심으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캠페인 시행

* 대한병원협회 ("의료용품 비축 자제, 불필요한 사용 줄이자는 자율실천 선언", 4.23)

* 대한약사회 ("약포지, 투약병 사용 줄이자는 대국민 대상 협조 요청", 시행예정)

3. 피해 제조업체 등 지원

- (건보수가 조정) 최근 환율 상승 반영하여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조정하여 제조·수입업체 원가상승 부담 완화(4.27~)

- 최근 3년간 환율을 고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변경^{'18.4월} 1,100원대 → ^{'26.4월} 1,300원대 및 6%* 상향 조정 (* 2등급 인상 4% 가산률 + '26년 환산지수 2%)

⇒ **약 2.7만개 별도산정 치료재료, 평균수가 2% 인상, 月 67억 원 지원 효과**

- (경영자금 지원) 플라스틱 기반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* 지원(중기부)

* '중동전쟁 피해기업' 경영애로 사유 시설을 통해 플라스틱 기반 의료 소모품 제조 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 (4.20)/ 대출규모: (당초) 2,500억원 → (확대) 5,000억원

** **복지부** 집중관리 품목 제조 301개社(1차 96社, 2차 205社) 명단 송부(4.10.) → **중기부** 지원가능 대상 207社(1차 56社, 2차 151社) 회신(4.23.) → **복지부** 개별 기업 안내